

日新

又日新

일신우일신: 나날이 더욱 새로워지다

<지문과 문제>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911)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P는 모순 관계이다.(기호 '~'은 부정을 나타낸다.)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B가 아닌 B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능세계는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한 가능

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 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가능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 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4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3점]

<보 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중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 ②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겠군.
-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 ⑤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

<Step0 해설을 읽을 때, 유의 사항>

1. A~E는 명제를 간단하게 치환하여 나타낸 것임.
2. \rightarrow : 예를 들어, 'A이면 B이다.'라는 명제가 있다면 'A \rightarrow B'로 제시하였음.
3. \equiv : 의미상 같음을 나타낸 것임.

<Step1 지문 내용 이해>

42번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했다.

(전략)

가능세계는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sim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sim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한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후략)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문 내용 정리 >

1. 가능세계의 일관성: 어떤 것이 가능 $X \rightarrow$ 그 가능세계 존재 X
*(참고)
= 어떤 가능 세계 존재 $O \rightarrow$ 어떤 것이 가능 O
2. 가능세계의 포괄성: 어떤 것이 가능 $O \rightarrow$ 그 가능세계 존재 O
*(참고)
= 어떤 가능 세계 존재 $X \rightarrow$ 어떤 것이 가능 X
3. 가능세계의 완결성: P or \sim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배중률 성립)
4. 가능세계의 독립성:
 - 1)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 함.
 - 2)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함.
=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지지 X

<Step2 <보기> 내용 이해>

4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3점]

<보 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보기> 내용을 정리해보자.

<<보기> 내용 정리>

A: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ex) 10명의 학생이 있는 상태에서, 10명 모두 연필을 씬.

B: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ex) 10명의 학생이 있는 상태에서, 10명 모두 연필을 쓰지 않음.

만약, 부정을 해본다면?

~A(=A의 부정):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것은 아니다.

ex) 10명의 학생이 있는 상태에서, '철수'라는 학생만이 연필을 쓰지 않거나, 5명의 학생만이 연필을 쓰지 않거나, 10명 모두 연필을 쓰지 않음.

~B(=B의 부정):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

ex) 10명의 학생이 있는 상태에서, '철수'라는 학생만이 연필을 쓰거나, 5명의 학생만이 연필을 쓰거나, 10명 모두 연필을 씬.

그렇다면, A와 B의 관계는?

A=~B가 아니라 A와 B사이에 중간이 있을 수 있는, 반대 관계임.(*5p배중률 참고)

반대 관계의 성질은?

1)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음.

2) 둘 중 하나만 참 or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

***(참고) 배중률(Law of excluded middle, 排中律)**

배중원리, 배중법이라고도 한다. 고전 논리학에 있어서 이 원리는 'A는 A가 아니고 비(非)A도 아닌 어떤 것일 수는 없다'라는 꼴로 표현된다. 즉 어떤 것 A와 그의 부정 비(非)A사이에 제3의 중간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원리로서, 동일률·모순율과 더불어 고전 논리학의 3대 원리를 구성한다. 기호 논리학에서는 명제 논리의 동어반복(tautology) $p \vee \sim p$ 를 가리킨다. 또한 명제의 진릿값으로서 참과 거짓 두 가지만을 인정하고, 그 밖의 제3의 진릿값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나타낸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배중률은 모순율을 다른 면에서 보완한다.

즉 모순율이 주장하는 것은 두 개의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판단의 쌍방이 모두 성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데 대하여, 배중률이 주장하는 것은 더 나아가 두 개의 서로 모순되는 판단이 쌍방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기호 논리학에서는 이 원리가 성립되고 있으나, 브라우어(L.E.J. Brouwer)는 수학적 직관주의의 입장에서 이 원리의 일반 타당성을 부정한다. 더욱이 하이팅(A. Heyting)은 배중률을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명제 논리의 공리체계를 구성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배중률 [Law of excluded middle, 排中律] (철학사전, 2009., 중원문화)

<Step3 지문 내용과 <보기> 내용을 통해 선지 판단>

-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중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 가능세계의 완결성을 통해 선지 앞부분을 판단해보자.

그런데 A와 B의 관계는 $A \sim B$ (모순 관계)가 아니라 A와 B사이에 중간이 있을 수 있는, 반대 관계이다.

따라서 가능세계의 완결성을 적용한다면, 'A와 ~A 중 하나가 반드시 참이고,' 나 'B와 ~B 중 하나가 반드시 참이고,'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 것이지, 'A와 B 중 하나가 반드시 참이고,'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A와 B가 반대 관계여서 둘 다 거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오답 선지!

- ②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겠군.

②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어떤 것이 가능 $O \rightarrow$ 그 가능세계 존재 O '이다. 따라서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가능) \rightarrow 그 가능세계(=“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 존재이다. 그런데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 쉽게 말해서, '10명의 학생 모두가 연필 사용X' 성립(=가능)하면 '10명의 학생 모두가 연필 사용X'인 가능세계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 선지에서는 그 세계에서 1명의 학생이 연필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오답 선지!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C: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ex) 10명의 학생이 있는 상태에서, '철수'라는 학생이 연필을 씬.

D: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ex) 10명의 학생이 있는 상태에서, '철수'라는 학생이 연필을 쓰지 않음.

C와 D의 부정은?

~C: 어떤 학생이 연필을 쓰지 않거나, 모두가 연필을 쓰지 않는다.

ex) 10명의 학생이 있는 상태에서, '철수'라는 학생만이 연필을 쓰지 않거나, 5명의 학생만이 연필을 쓰지 않거나, 10명 모두가 연필을 쓰지 않음.

~D: 어떤 학생이 연필을 쓰거나, 모두가 연필을 씬.

ex) 10명의 학생이 있는 상태에서, '철수'라는 학생이 연필을 쓰거나, 5명의 학생만이 연필을 쓰거나, 10명 모두가 연필을 씬.

즉, C와 D의 관계는 모순관계가 아니라 반대관계를 알 수 있음.

따라서 '가능세계의 완결성'을 적용한다면, 'C와 ~C 중 하나가 반드시 참이고,' 나 'D와 ~D 중 하나가 반드시 참이고,'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 것이지, 'C와 D 중 하나가 반드시 참이고,'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A와 B가 반대 관계여서 둘 다 거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오답 선지!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따라서 둘 중 하나가 참인 것이 가능하다. (물론, 둘 다 거짓인 것도 가능하다. 다만, 둘 다 참인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A가 참이거나 B가 참' 가능 $O \rightarrow$ A가 참이거나 B가 참'인 가능세계 존재 O 라고 판단할 수 있다.

→ 정답 선지!

⑤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⑤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 E: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A와 B가 모순관계가 아니라 반대관계이므로 E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E가 가능한 가능세계의 존재성에 대한 판단이다.

그런데 가능세계의 일관성은

어떤 것이 가능 $X \rightarrow$ 그 가능세계 존재 X

= 어떤 가능 세계 존재 $O \rightarrow$ 어떤 것이 가능 O

이므로 이 선지를 판단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한편, 가능세계의 포괄성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 가능 $O \rightarrow$ 그 가능세계 존재 O

= 어떤 가능 세계 존재 $X \rightarrow$ 어떤 것이 가능 X

이므로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가능 O 로부터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가능세계 존재 O 라는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이 아니라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으로 고쳐야 한다.

→ 오답 선지!

***(참고) 관련 기출 문제**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506B)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정합설이다.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합적이다’는 무슨 의미인가?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인데,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모순 없음’과 ‘함축’, 그리고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 등으로 정의해 왔다.

먼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여기서 모순이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처럼 ㉡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앞의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합적이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의 예에서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 해결하기 위해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함축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른다.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이다.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은주는 학생이다.”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에 의해 함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 과도하게 제한된다.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명제 “민수는 운동 신경이 좋다.”는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는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지만,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준다. 그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두 경우 각각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 주는 명제 사이에는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이다.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많

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최근 연구는 확률 이론을 활용하여 정합설을 발전시키고 있다.

22.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 -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
- ② 민수는 농구를 좋아한다. - 민수는 농구보다 축구를 좋아한다.
- ③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다. - 그것은 민수에게 손해이다.
- ④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다. -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다.
- ⑤ 민수의 말이 옳다. - 은주의 말이 틀리다.

<간단 해설>

①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 -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

→ A: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

B: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

~A: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

A=~B이므로 A와 B는 모순 관계이다.

→ 정답 선지!

② 민수는 농구를 좋아한다. - 민수는 농구보다 축구를 좋아한다.

→ C: 민수는 농구를 좋아한다.

D: 민수는 농구보다 축구를 좋아한다.

~C: 민수는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민수는 농구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거나, 농구를 싫어한다.

D: 민수는 농구보다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 오답 선지!

③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다. - 그것은 민수에게 손해이다.

→ E: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다.

ex) 민수가 1,000원 내고, 10,000원 얻는 일.(+9,000원)

F: 그것은 민수에게 손해이다.

ex) 민수가 10,000원 내고, 1000원 얻는 일.(-9,000원)

~E: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 아니다.

= 그것은 민수에게 손해이거나, 손해도, 이익도 아니다.

ex) 손해도, 이익도 아닌 경우

민수가 1,000원 내고, 1,000원 얻는 일.(0원)

→ 오답 선지!

* 이익이 아니면 손해라고 생각하면 고르기 쉬운 선지였다.

④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다. -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다.

→ G: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다.

H: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다.

~G: 오늘은 화요일이다.

~H: 오늘은 수요일이다.

→ 오답 선지!

⑤ 민수의 말이 옳다. - 은주의 말이 틀리다.

→ I: 민수의 말이 옳다.

J: 은주의 말이 틀리다.

~I: 민수의 말이 틀리다.

~J: 은주의 말이 옳다.

→ 오답 선지!

*(참고) 19수능 연계지문

19수능특강 독서 인문 07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딜레마 논증은 토론에서 상대방이 피하려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논증 형식이다. p와 q가 진술이라고 할 때 딜레마 논증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지니고 있다.

p이거나 q이다.
만약 p라면 r이다.
만약 q라면 r이다.
따라서 r이다.

p를 선택하든 q를 선택하든 r이라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러지도 못하는 데 저러지도 못하네.” 라고 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면 딜레마 논증도 실패하고 만다. 위 논증은 첫 번째 전제인 “p이거나 q이다.” 에서 p와 q가 모순 관계여야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 되는데, 만약 p와 q가 반대 관계여서 p도 아니고 q도 아니게 된다면 상대방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어떤 두 진술 사이에 둘 가운데 한 진술이 옳으면 다른 진술이 그를 수밖에 없고, 또 둘 가운데 한 진술이 그르면 다른 진술이 옳을 수밖에 없는 관계를 ‘모순 관계’ 라고 한다. 아래에 짝을 이루고 있는 두 진술은 모순 관계이다.

“지금 이곳에 비가 오고 있다.” - “지금 이곳에 비가 오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어떤 진술 “p” 와 그것의 부정 “p가 아니다.” 라는 진술은 모순 관계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p이거나 p가 아니다.” 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진술은 반드시 옳은 진술이다. 이러한 진술 형식을 배중률이라 한다. 또한 “어떤 것이든 p이면서 p가 아닌 것일 수 없다.” 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진술도 반드시 옳은 진술인데, 이러한 진술 형식을 무모순율이라 한다. 배중률은 모든 진술이 옳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는 원리를, 무모순율은 옳으면서 동시에 그른 진술은 없다는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배중률과 무모순율은 “p는 p이다.” 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동일률과 함께 고대로부터 ‘사고의 기본 법칙’ 으로 일컬어진다. 사고의 기본 법칙이라고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합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모순에 휘말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이것들은 사고의 논리적 토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진술에 전제된 원리의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어떤 두 진술 사이에는 둘 다 옳을 수는 없지만, 둘 다 그를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는 수가 있다. 이 런 경우 두 진술 사이의 관계를 ‘반대 관계’ 라고 한다. 다음의 진술들은 반대 관계에 있다.

“지금 이곳의 날씨는 춥다.” - “지금 이곳의 날씨는 덥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날씨가 추우면서 덥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적당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위 두 진술은 둘 다 옳을 수는 없지만 둘 다 그를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진술들 사이의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흑백 사고의 오류도 그중 하나인데, 이것은 사실은 반대 관계의 두 진술을 모순 관계의 두 진술인 것으로 혼동하는 잘못이다. 가령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은 모든 정치적 논쟁에서 옳고, 상대편 정당은 항상 그르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X는 전적으로 좋다.” 라는 진술은 “X는 전적으로 나쁘다.” 라는 진술과 반대 관계를 이루는 진술이다. 흑백 사고의 오류는 이 두 진술이 둘 다 그를 수 없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이다.

진술들 사이의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의 차이를 아는 것은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다. 그리고 딜레마 논증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이 차이를 이용해서 딜레마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을 ㉠ ‘뿔 사이로 피해 간다’ 라고 말한다.

19수능 국어 42번 해설

2018년 12월 24일 작성. 2018년 12월 25일 검토 완료.

<작성자>

루아갈

- 지방의대생
- 16 수능 국어A형 100점(100%)
- 17 수능 국어 96점(99%)
- 前) 국어 기출 모의고사 검토자
- 現) 라플라스 국어 멘토
- 국어 공부 계획 가이드라인, 현대시의 4요소, 독서-재진술, 문장 독해 칼럼 등 작성
- 각종 문의: sohnhd@naver.com

<검토자>

허혁재

Esther Lucy

- 19 수능 국어 백분위 100

Veritas liberabit

- 現) 라플라스 국어 스태프
- 18 수능 국어 100점, 19 수능 국어 97점
- 19 수능 대비 칼럼 Lucete 작성, 20 수능 대비 칼럼 Occasio 작성

본 칼럼의 저작권은 포만한 수학 연구소, Laplace Club '루아갈'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2차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저작권 관련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직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 저작물을 원본 그대로 사용하는 것만을 허용합니다.

